

SKC, 폐수 처리기술 산업훈장 수상

SKC가 악성 산업폐수 처리기술 개발 등의 공로로 산업훈장을 받았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11월1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제31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를 열고 157명의 개인과 단체에 훈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조병수 SKC 울산공장장은 미생물을 이용한 고농도 악성폐수 처리기술 개발 등의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임경신 삼양사 울산공장장은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 효율 달성 등의 공로로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기록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도입과 검증을 마치고 2010년까지 1997년 배출량 대비 10% 감축목표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 에너지 전담팀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가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이강호 한국그린포스펌프 대표이사도 고효율 펌프와 모터기술을 개발·보급해 1989-2008년 동안 총 6700억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화학저널 2009/11/12>